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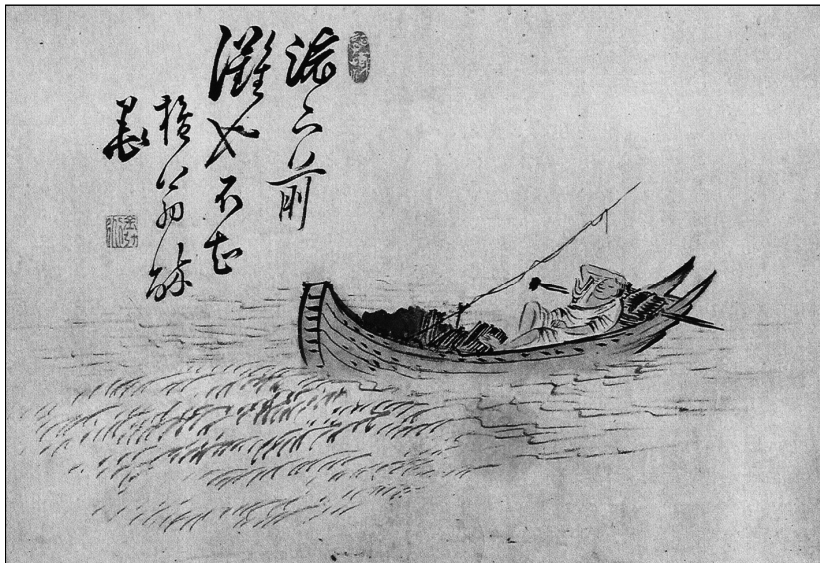
제 5 교시

제2외국어/한문 영역(한문 I)

성명

수험 번호

1. 그림과 대화의 내용으로 보아 ㉠에 들어갈 것은? [1점]



교사: 조선 후기 화가 김홍도의 작품을 감상해 볼까요?
가은: 물결을 거침없는 필치로 그리고, 떠내려가는 배를 중앙에 과감히 배치했네요.
문경: 낚싯대를 뱃전에 비스듬히 반쳐 놓은 것을 보니 물고기 잡는 일을 하는 사람인가 봐요.
교사: 맞아요. 그림에 시원하고 큼직하게 쓰인 “앞 여울로 흘러가는데도 알지 못한다네.”라는 시구도 그림의 내용과 잘 어우러집니다. 낚싯줄을 거두고 한가롭게 잠이 들어 배가 물결 따라 여울로 흘러 내려가는 줄도 모르는 (㉠)의 모습이 인상적입니다.

- ① 木手 ② 石工 ③ 漁夫 ④ 農夫 ⑤ 商人

2. ㉠~㉣ 중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?



- ① ㉠, ㉢ ② ㉠, ㉣ ③ ㉡, ㉢
④ ㉠, ㉡, ㉣ ⑤ ㉡, ㉢, ㉣

3. 상반되는 뜻을 지닌 한자끼리 연결한 것만을 <보기>에서 고른 것은? [1점]

<보 기>			
ㄱ. 兵 - 卒		ㄴ. 住 - 居	
ㄷ. 先 - 後		ㄹ. 始 - 終	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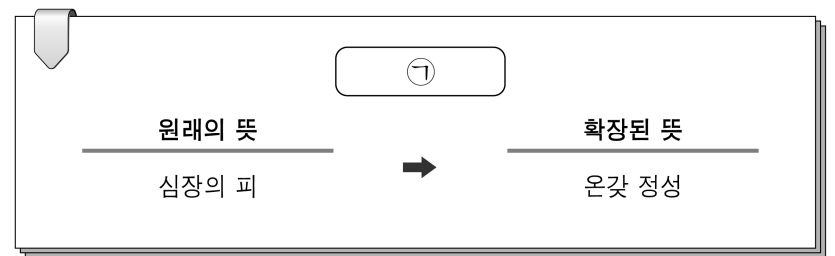
- ① ㄱ, ㄴ ② ㄱ, ㄷ ③ ㄴ, ㄷ
④ ㄴ, ㄹ ⑤ ㄷ, ㄹ

4. 그림과 대화의 내용으로 보아 ㉠에 들어갈 것은? [1점]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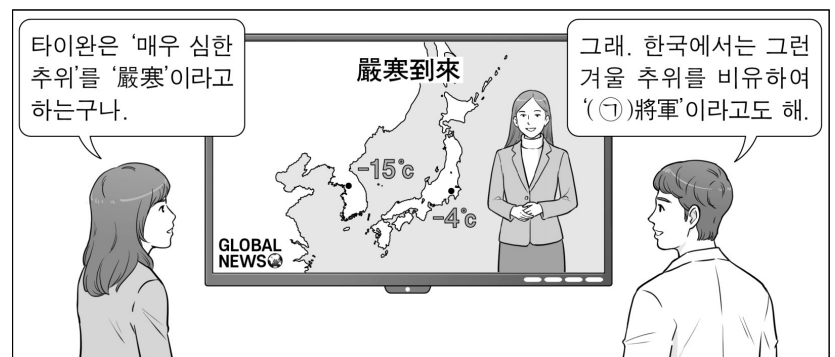
- ① 作 ② 改 ③ 胡 ④ 呼 ⑤ 別

5. 단어장의 내용으로 보아 ㉠에 들어갈 것은? [1점]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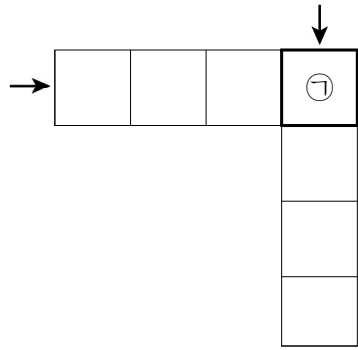
- ① 心血 ② 止血 ③ 充血 ④ 心身 ⑤ 心思

6. 그림과 대화의 내용으로 보아 ㉠에 들어갈 것은? [1점]



- ① 火 ② 冬 ③ 日 ④ 北 ⑤ 老

7. 화살표 방향으로 성어를 채울 때, ㉠에 들어갈 것은?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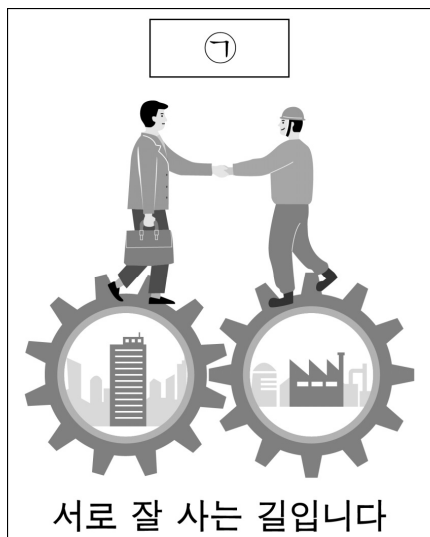


【가로 열쇠】
눈으로 차마 볼 수 없음.

【세로 열쇠】
이익을 보면 의리를 생각함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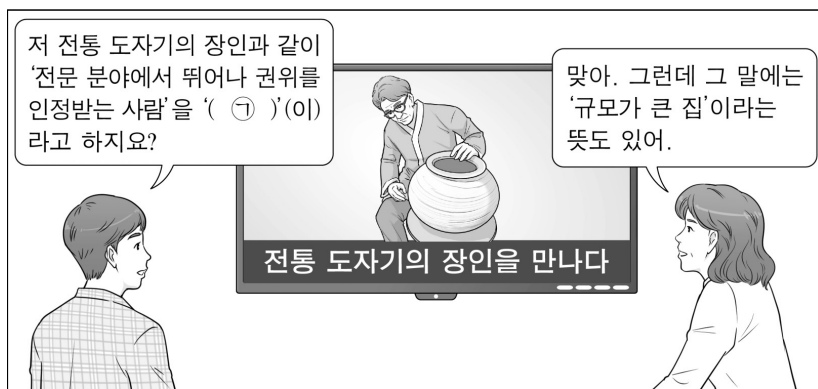
- ① 見 ② 利 ③ 義 ④ 目 ⑤ 不

8. 광고의 내용으로 보아 ㉠에 들어갈 것은? [1점]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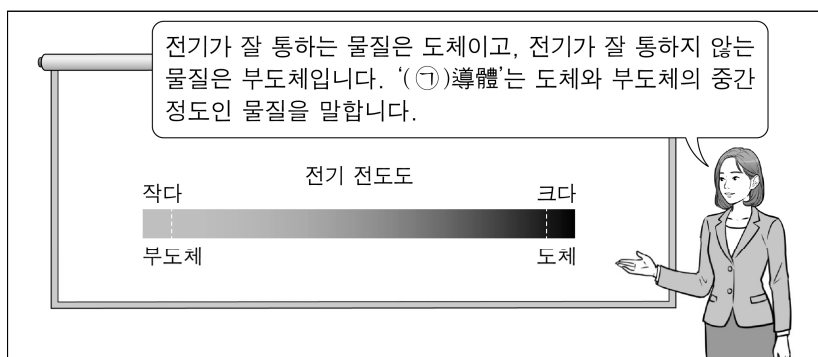
- ① 外面 ② 私慾
③ 紛爭 ④ 相生
⑤ 獨占

9. 그림과 대화의 내용으로 보아 ㉠에 들어갈 것은? [1점]



- ① 大人 ② 巨人 ③ 大家 ④ 家門 ⑤ 家長

10. 그림과 글의 내용으로 보아 ㉠에 들어갈 것은? [1점]



- ① 引 ② 半 ③ 指 ④ 前 ⑤ 教

11. 글의 내용으로 보아 ㉠에 들어갈 것은?

지금 적의 강력하기가 옛날과 다르고, 지형의 유리한 조건이 예전과 상당히 달라졌기에, 옛사람이 쌓은 산성은 지금 대부분 쓸 수 없다. 그런데도 만약 옛것 그대로 따른다면, 이는 (㉠)와/과 다름이 없다.

- 『서애집』 -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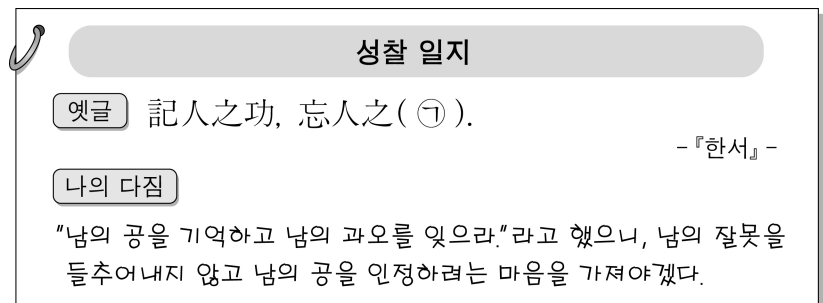
- ① 人山人海 ② 九牛一毛 ③ 水魚之交
④ 多才多能 ⑤ 刻舟求劍

12. 그림과 대화의 내용으로 보아 관계있는 것은?



- ① 三人成虎 ② 竹馬故友 ③ 羊頭狗肉
④ 無用之物 ⑤ 塞翁之馬

13. 글의 내용으로 보아 ㉠에 들어갈 것은?



- ① 吉 ② 助 ③ 過 ④ 恩 ⑤ 德

14. 글의 내용으로 보아 ㉠과 ㉡에 공통으로 들어갈 것은?

○ 居(㉠)思危, 思則有備, 有備無患.

- 『춘추좌씨전』 -

○ 人心固結, 則危可使(㉡), 亂可使治.

- 『태계집』 -

- ① 安 ② 凶 ③ 亡 ④ 死 ⑤ 傷

15. 글의 내용으로 보아 ㉠과 ㉡에 들어갈 것은?

✱ 학습 활동지 ✱

•문장: 律己須明白, 待人要包容. -『청장관전서』-

•의미: 자기를 단속할 때는 (㉠)히 해야 하고, 남을 대할 때는 (㉡)을/를 베풀어야 한다.

- | | | | |
|------|----|------|----|
| ㉠ | ㉡ | ㉠ | ㉡ |
| ① 분명 | 관용 | ② 신중 | 관용 |
| ③ 분명 | 기회 | ④ 신중 | 기회 |
| ⑤ 분명 | 편의 | | |

16. 글에 대한 이해로 옳은 것은?

凡遇事, 若可爲之事, 則盡誠爲之. -『송담집』-

- ① 원인 없는 결과란 없는 법이다.
- ② 남의 말은 잘 따져 보아야 한다.
- ③ 다른 사람의 의견을 경청해야 한다.
- ④ 어려운 사람의 사정을 헤아려야 한다.
- ⑤ 해야 할 일이라면 최선을 다해야 한다.

[17~18]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.

語云: “十年之計, 種之以樹.” ㉠隨地所宜, 雜植樹木, 春則賞花, 夏則蔭涼, 秋則食實, 以至材木器用, 亦皆取資於是. 此古人所以重栽植也.

* 蔭(음): 그늘
-『산림경제』-

17. 글의 내용으로 보아 ㉠의 의미로 옳은 것은?

- ① 잡목이라도 모두 나뭇의 가치가 있다.
- ② 땅의 성질에 맞게 나무를 섞어 심는다.
- ③ 장기적 인재 양성 계획을 세워야 한다.
- ④ 알맞은 자리라야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.
- ⑤ 어디서나 잘 자랄 수 있는 나무를 심는다.

18. 윗글의 내용으로 옳은 것만을 <보기>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?

<보 기>

ㄱ. 봄에 꽃을 감상할 수 있다.
ㄴ. 여름에 새소리를 들을 수 있다.
ㄷ. 가을에 열매를 먹을 수 있다.

- | | | |
|--------|-----------|--------|
| ① ㄱ | ② ㄴ | ③ ㄱ, ㄷ |
| ④ ㄴ, ㄷ | ⑤ ㄱ, ㄴ, ㄷ | |

19. 글의 내용과 관계있는 것은?

이호생은 몸이 약하여 활을 잘 쏘지 못했다. 그래서 “내 비록 허약하여 화살을 멀리 쏘아 보낼 수는 없지만, 명중시키는 연습을 꾸준히 한다면 잘 맞힐 수는 있겠다.”라고 다짐했다. 그러고는 3년 동안 매일 아침마다 활과 화살을 가지고 산에 올라가 종일 과녁에 맞히는 연습을 하여 마침내 명궁으로 세상에 이름을 떨쳤다.

-『청과극담』-

- ① 惟正己者, 乃可以正人也.
- ② 久而不已, 則必至于有成.
- ③ 以古制今者, 不達事之變.
- ④ 有而不知足, 失其所以有.
- ⑤ 官怠於有成, 病加於小愈.

[20~21]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.

謂人有男女, 則可, 謂見有男女, 豈可乎? 謂見有㉠長短, 則可, 謂男子之見盡長, 女人之見盡短, 又豈可乎?

-『분서』-

20. ㉠과 짜임이 같은 것은? [1점]

- ① 本末 ② 靑山 ③ 東風 ④ 黃土 ⑤ 深夜

21. 윗글에 대한 이해로 옳은 것은?

- ① 인품은 빈부에 비례하지 않는다.
- ② 식견의 우열은 성별과 관계없다.
- ③ 직업에 귀천이 있는 것은 아니다.
- ④ 나이가 많다고 식견이 높지는 않다.
- ⑤ 신분에 따라 식견이 달라지지 않는다.

[22~23]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.

孟子曰: “愛人不親, 反其仁, 治人不治, 反其智, 禮人不答, 反其(㉠). 行有不得者, 皆㉡反求諸己, 其身正, 而天下歸之.”

-『맹자』-

22. 글의 내용으로 보아 ㉠에 들어갈 것은?

- ① 史 ② 命 ③ 問 ④ 敬 ⑤ 勇

23. 윗글의 내용으로 보아 ㉡의 의미로 옳은 것은?

- ① 남에게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야 한다.
- ② 옳지 못한 일은 주저 없이 바로잡아야 한다.
- ③ 문제의 원인을 자신에게 돌이켜 찾아야 한다.
- ④ 남과 한 약속은 무슨 일이 있어도 지켜야 한다.
- ⑤ 모르는 것이 있으면 누구에게라도 배워야 한다.

[24~25]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.

李喜秀, … (중략) … 手不釋筆, 五十年, 指頭堅肉成瘤.
黑夜暗室, 能書字, ㉠無少差違, 苟非學力徹底, 能如是乎?
世謂之(㉡).

* 瘤(류): 혹
- 『일사유사』 -

24. 글의 내용으로 보아 ㉠의 의미로 옳은 것은?

- ① 너무나 차이가 났다.
② 아무도 알지 못했다.
③ 누구나 할 수 있었다.
④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다.
⑤ 조금도 어긋남이 없었다.

25. 윗글의 흐름으로 보아 ㉡에 들어갈 것은?

- ① 神仙 ② 神筆 ③ 惡筆 ④ 忠臣 ⑤ 妙策

[26~27] 다음 시를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.

(가) 江月圓還缺, 庭梅落又㉠開.
㉡逢春歸未得, 獨上望鄉臺.

- 임억령, 「송백광훈환향(送白光勳還鄉)」 -

(나) 故人西㉢辭黃鶴樓, 煙花三月㉣下揚州.
孤帆遠影碧空㉤盡, 惟見長江天際流.

* 帆(범): 돛단배
- 이백, 「송맹호연지광릉(送孟浩然之廣陵)」 -

26. ㉠~㉤의 풀이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㉠: 피다 ② ㉡: 만나다 ③ ㉢: 사양하다
④ ㉣: 내려가다 ⑤ ㉤: 사라지다

27. 위 시에 대한 이해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(가)는 자연물의 변화를 통해 시간의 흐름을 표현했어.
② (가)의 넷째 구에는 시적 화자의 고독감이 드러나 있어.
③ (나)는 이별의 아쉬움을 표현하고 있네.
④ (나)의 넷째 구에는 청각적 심상이 잘 드러나 있네.
⑤ (가)와 (나)에는 모두 계절적 배경을 알 수 있는 시어가 사용되었지.

[28~30]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.

伯牙游於泰山之陰, 卒逢㉠暴雨, 止於巖下. 心悲, 乃援琴而鼓之. 初爲霖雨之操, 更造崩山之音, 曲每奏, 鍾子期輒㉡窮其趣.

* 游(유): 노닐다 * 霖(림): 장마 * 輒(첩): 번번이
* 鍾子期(중자기): 사람 이름
- 『열자』 -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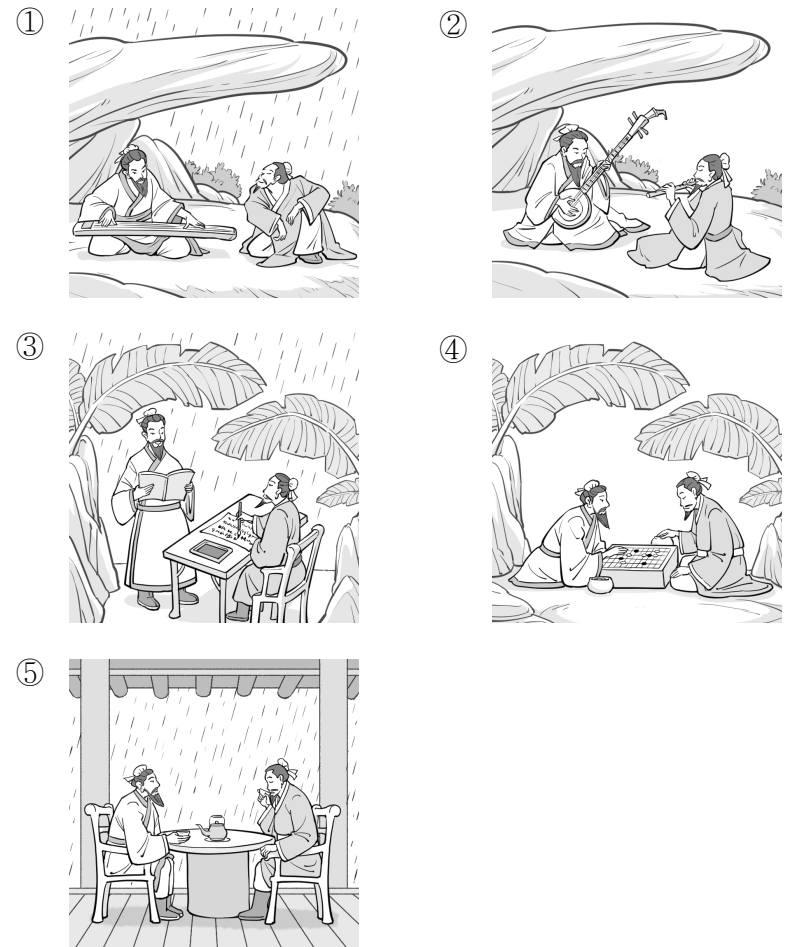
28. ㉠의 독음으로 옳은 것은? [1점]

- ① 폭풍 ② 호우 ③ 폭우 ④ 강우 ⑤ 폭설

29. 윗글의 내용으로 보아 ㉡의 의미로 옳은 것은?

- ① 모두 잘 알다.
② 처지가 딱하다.
③ 생활이 빈곤하다.
④ 어설피 둘러대다.
⑤ 달리 방법이 없다.

30. 윗글의 내용을 이해한 그림으로 알맞은 것은?



* 확인 사항

-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(표기)했는지 확인하시오.